



[산업] 삼성전자 말귀 '차차' 청소 '척척' 무풍의 폭풍 진화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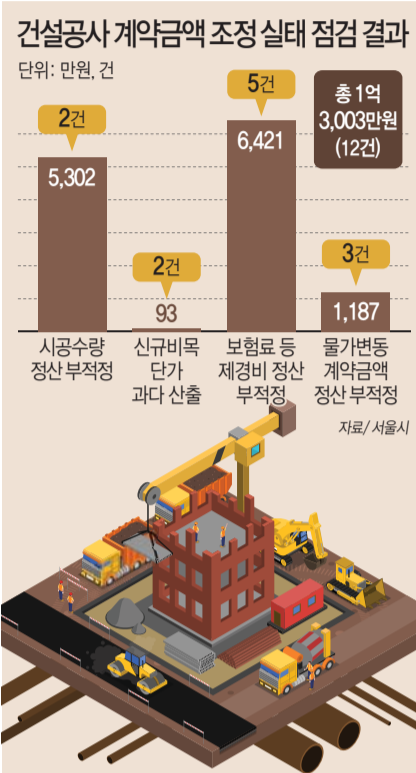


Life

[라이프] 현대백 전자영수증 발급 종이영수증 없앤다 니



# ‘설계 무단 변경, 인건비 오류, 보험료 과다 지급’ 적발



## 서울시 상수도본부 건설공사 12건 시정 조치

건설공사 30건 점검해 12건 적발 과다 조정 금액 1억3000만원 환수

서울시가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본부)에서 실시한 건설공사 30건을 대상으로 계약금액 조정 실태를 점검해 1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8~2019년 상수도본부가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과다하게 반영된 공사 대가나 계약금액 1억3000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시는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2건(5302만원) ▲신규비목 등 단가 과다 산출 2건(93만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부적정 3건(1187만원)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 부적정 5건(6421만원) 등 총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1억3003만원의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낙산배수지건설 공사의 경우 계약대상이 제출한 공정별 물량 내역서에는 현장사무소 등 가설건축물을 370㎡ 규모로 설치하는 것으로 적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현장사무소 98㎡, 시험실 22㎡ 등 120㎡만 설치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설계가 변경돼 시공방법이 바뀌거나 투입자재가 달라지는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시는 “상수도본부는 2018년 12월 2차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 처리했다”며 “이로 인해 ‘현장사무소 등 가설 건축물 설치’ 비목의 시공 수량에 대한 공사비 3169만원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상수도본부는 또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때 교통안전 관련 인건비 비목에 대한 원가 계산 적용 오류로 93만원을 더 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60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해 공사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에 필요한 안전관리 비용은 원가 계산 시 경비로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상수도본부는 이를 노무비로 적용해 제비용 경비를 불필요하게 많이 지불했다.

또 해당 공사의 2차 계약내역에 각종 보험료와 수수료에 대한 물가변동 증가분이 포함돼 있지만 제경비 실정산 결

과 추가 사용분이 없었음에도 감액 조치를 내리지 않아 공사비 962만원을 과다 지출했다.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배수지 공사비에 계산된 보험료(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는 직접 노무비 대상자에게만 줘야 하는데 현장 대리인 등 간접노무비 대상자에게도 보험료를 지급해 5872만원을 추가로 냈다.

시는 불필요하게 지급된 공사비 1억 3000만원을 여입(회수·반환) 조치하고 공사원이 계산서 작성 수준 향상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시는 “공사원이 계산서 작성 시 수량과 각종 요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병행할 것”이라며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박원순 “지금 이 한반도에 투자할 최적기”

美 상공회의소서 투자 독려 “서울, 북한 진출 교두보 될 것”

미국을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이 국내 지방자치단체장 처음으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초청 연설자로 나서 “오늘이 바로 한반도 투자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미국 워싱턴DC 상공회의소에서 ‘서울의 투자경쟁력’을 주제로 연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서울 투자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으로 대변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일 것”이라며 “경제성장에 대한 막마름이 결국 북한을 개방과 민주화로 이끌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는 세계 경제에 새로운 기회”라며 “골드만삭스는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가 2050년 세계 2위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은 북한 진출의 교두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오랜 동맹으로 맺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은 미국의 가장 협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여러분의 과감한 결단이 리스크를 큰 기회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박원순 시장이 14일(현지 시간) 세계 최대 비즈니스 조직인 미 상공회의소에서 초청연설에 나서 ‘서울의 투자경쟁력’을 알렸다. /서울시

바꾸고 미국 국부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투자를 당부했다.

1912년 설립된 미 상공회의소는 미국 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즈니스 조직으로 자국에서뿐만 아니라 전세계 교역·투자 분야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연설 이후 박 시장은 토머스 도너휴 상공회의소 회장과 면담하고 서울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박 시장은 한국계 최초로 민주당 미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

된 앤디킴을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방안을 모색했다.

외교·안보분야 전문가인 김 의원은 “평화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있어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유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 밥 메데넨스 상원의원, 아미 베라 하원의원과 잇달아 대담하고 버지니아주 애네타일 한인타운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헌화했다. /김현정 기자

##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예타 통과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완공시 서수원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

경기도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추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은 수원 광교에서 출발해 화서역, 호매실을 잇는 약 8km의 철도로, 인덕원~동탄선(월드컵경기장역), 경부선(화서역)과 연계된다.

철도 완공 시 수도권 남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 소외지역인 서수원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약 100분 정도 소요돼 서울 도심 접근에 어려움이 많으나, 신분당선 연장노선이 개통되면 약 47분으로 기존 버스 이용대비 50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서울로의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그동안 오랜 기간 지연된 광교~호매실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및 예비타당성 대응용역 추진(국토부, 수원시 공동용역)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흥선선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도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서울시, 설 연휴 대중교통 새벽 2시까지 연장

오는 20일부터 설날종합대책 추진

서울시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안전·교통·나눔·편의·물가 5대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설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시는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3~28일 시청 1층에 24시간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119기동단속팀은 목욕탕과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무작위로 점검하

고 가스시설 1655곳과 족방, 전통시장의 소방 안전을 확인한다.

시는 공사현장 144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설 대비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도 강화한다.

시는 귀경 인파가 몰리는 25~26일 지하철·버스 막차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고속·시외버스는 23~27일에 평시보다 19% 늘려 운행한다.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도

운영한다. 녹색순환버스는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운행되며, 요금은 600원이다.

시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설 명절 위문품비로 가구당 3만원을 지급하고 시설 입소 노인 1495명과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는 설날 위문금품으로 1인당 1만원을 준다. 물가 안정을 위해 시는 사과, 배, 배추, 조기 등 9개 설 성수품 반입량을 평소 대비 10% 늘린다.

서울시 설 연휴 종합 정보는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자율주행 핵심 기술, 세계서 ‘주목’

CES2020 참가, 세계시장 진출 물꼬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이 세계 최대 IT-융합기술 전시회인 ‘CES2020’에 참가해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선보이고, 국내 자율주행 혁신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 물꼬를 텄다.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 참가하여 샌즈 엑스포(Sands Expo) 1층 G홀 유레카 파크(6개, Eureka Park)

와 일관관(2개)에 총 8개 규모의 전시부스를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한 기술들은 자율주행 분야에서 중요한 핵심 기술들로, 세계 유수 기업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각국 자율주행 분야 협회 및 기업 등의 컨퍼런스 초청이 잇따랐다.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제로셔틀의 후속모델이자 자율주행으로 실내외 이동이 가능한 1인승 전기 모빌리티 ‘제로 PM’을 선보여 많은 해외 참관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경기=김승열 기자